

21세기 성경교육의 방향 모색

- 성경 교육의 역사를 중심으로 -

김석주(한국코메니우스연구소)

I. 서론

1. 문제제기

성경교육은 기독교교육에 있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 또는 전달하는 내용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대다수가 “성경”이라고 대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독교교육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활동이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성경에 잘 드러나 있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은 인간을 교육의 대상으로 하고, 성경을 교육의 매개체로 하여 교육적 행위를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도록 하는 성경교육 내지 경건교육이 된다. 따라서 성경교육이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간을 교육하는 것이므로 교육의 그 시작에서부터 신학적이어야 한다.

한편, 제대로 된 성경교육은 성도들의 영성발달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딤후 3:14-16; 골 1:28).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100여년 이상의 복음전파와 이에 따른 성경교육의 적극적 시행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성도 수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성도의 수가 과거에 비해 많다고 해서 영성이 발달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영성을 겸비한 제자도는 그 자체로 반드시 재생산 한다는 주장(옥한흠, 2005)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현상은 한국교회에 대해 칭찬은 없고 대신 비난의 목소리가 더 크고 다양하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구약시대에도 있었던 “제사장 세습”(출 28:1,40:12-15; 민 16:40, 17장, 18:1-8)의 현상이 현대의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 세습을 하는 경우가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교회가 대 사회적으로 비난을 자초하는 것 중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교회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선행보다 과오가 더 많다는 하나의 방증이 된다. 세 번째 현상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각 분야의 지도자 중에 개신교 지도자가 없다(조현주, 2010)는 것이다. 개신교 지도자 부재의 현상은 이미 그 자체로서 지도자들이 사회에 대한 기여가 없었다는 것이며, 아울러 본보기적 삶의 모습도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개신교 지도자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가르침의 전수가 없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교회, 목회자, 성도를 망라하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에 있어 총체적 난제들은 영성의 부재 또는 영성이 미발달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이는 성경교육의 실패적 현상임도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교육의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해 임자현(2004)은 한국교회가 고수해 온 전달과 암기위주의 전통적인 성경교육 방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잘못된 성경교육의 방법으

로 인해 교회적으로 야기된 문제는 시대와 국가를 초월한다. 은준관(1987)은 1970년대 미 연합감리교의 어린이가 460만에서 230만으로 줄어든 원인에 대해 시청각 교육에 길들여진 아동들에게 주일학교 교사가 ‘입으로만 가르친’ 상황 때문이었다고 했다. 한미라(2005)는 교회교육의 부재 때문에 한국교회 내에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이 양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성경교육의 실패는 단순히 성경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교회 내 성도들의 양적 감소에서부터 보다 중차대하게는 성도들의 질적인 퇴보 즉 신앙을 저버리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교회사적으로 볼 때, 신앙의 퇴보 현상에서 모두가 무기력하게 있지는 않았다. 분명한 사실은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교육 때문이었고, 한국교회의 역사상 가장 큰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평양대부흥 운동은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가르친 사경회의 결과였다. 이를 종합하면 교회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성경에 충실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성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원인에 대해 철저한 자기 반성과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엇보다 성경교육으로 다시금 눈길을 돌렸을 때 그 결과는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보다 더 성장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의 교회에 벌어지는 각종 현상과 문제들에 대한 원인을 우선 성경교육의 실패에 돌린다. 그리고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교육의 재개 즉 올바른 성경교육은 어떠한가 하는가에서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올바른 성경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일례로 다양한 성경교육의 방법이 여러 연구¹⁾에서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의 방법에 대한 연구는 올바른 성경교육으로의 회복에 있어 단편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일반 교육의 현상에서도 보듯이 시대를 달리해서 수 많은 교육의 방법들이 생성되고 소멸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지금은 잊혀진 과거의 추억이 되었다. 따라서 성경교육은 그 시작에서부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고민은 어쩌면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해결책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한편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 바람직한 성경교육의 방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성경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시행된 성경교육에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연구자가 교회의 역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거나 신앙교육을 시행할 때 그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신앙교육과 성경교육으로 인해 지금껏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질이 왜곡됨 없이 전해질 수 있었고, 우리 또한 이 순수한 믿음 그대로를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수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1) 참고. 김희자(2004). “청소년과 장년을 위한 성경 교육방법의 새로운 방향”. 『기독교교육정보』. Vol.8. 275-292.; 이정호(2004). “창조적 성경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복음과 교육』. Vol.1. 279-299.; 이금만(2007). “성서기호학과 거룩한 독서를 접목한 통전적 성서교육”. 『기독교교육논총』. Vol.15. 25-60.

II. 본론

1. 성경교육이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성경을 가르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행 9:31).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 그 자체를 이해시키거나 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르침이라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이해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많은 문헌들²⁾이 성경교육에 대한 가르침의 중요성, 가르침의 방법 심지어 효과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듯 다양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특징 하나를 발견한다. 그것은 바로 “성경교육이란 무엇인가?” 즉 성경교육에 대한 명확하면서도 간략한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전체의 맥락 속에서 성경교육의 정의에 대한 유추는 가능하다. 하지만 각각의 문헌에서는 명확한 정의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본 연구자는 “성경교육의 그 자체적 특성상 명확하거나 또는 간략하게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정의를 내린 적이 없지는 않다. 한춘기(2008)는 성경교육에 대해 “성경교수(교육)는 성경을 가르치는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린 적이 있다. 하지만 성경교육에 대해 정의는 아주 간략하게 진술했지만 뒤이어 성경교육, 설교, 주해와의 차이점에 대해 많은 면(面)수를 할애해 가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렇듯 부연설명이 필요한 이유는 성경교육에 대한 정의만으로는 성경교육의 고유한 의미를 충분히 제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성경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성경교육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가르친 성경의 내용대로 예수님의 모범된 신앙과 삶을 드러내 보이며,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성경교육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내리고자 하는 이유는 먼저 성경교육에 대한 정의 없이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목적 없이 먼 길을 떠나는 것과 같다. 다음으로 성경교육에 대한 정의가 없으면 성경교육의 내용을 선정할 수 없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구분 없이 무작정 교육을 시행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성경교육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 교육내용에 적절한 교육방법도 선정할 수 없다. 결국 성경교육에 대한 정의도 없고, 교육내용의 선정도 없으며 그리고 구체적 교육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성경교육을 한다는 것은 “교육과정”(教育課程) 자체가 없다는 것이며 이는 의도된 교육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아가 이는

2) 참고. Lawrence Richards. 『창조적인 성서 교수법』. 권혁봉 역(1972). 서울: 생명의 말씀사; Findley B. Edge. 『효과적인 성서교수법』. 노윤백 역(1975). 서울: 생명의 말씀사; 이순환(1980). 『성서교수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Kenneth O. Gangel & Howard G. Hendricks. 『참된 기독교 교육자를 만드는 교수법』. 유명복·홍미경 역(1994). 서울: 파이디온출판사; 정일웅(2009). 『성경해석과 성경교수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성경교육의 방향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해야 할 최소한의 노력마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내어 맡기는 대단한 “믿음”이 될 것이다.

2. 성경교육의 필요성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앞서 진술한 정의에서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가르친 말씀 또는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말씀대로의 삶을 중요시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의 삶을 강조하는 설교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설교에 대해 김창훈(2009)은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것을 이 시대에 사는 청중들의 신앙과 삶에 연결하고,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청중들의 신앙과 삶이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한다. 위 정의의 특징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성경원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특정한 상황을 분석하여 학문적으로 규명하는 주해의 작업이다. 다음으로 주해를 바탕으로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교훈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그 교훈을 오늘날의 청중들에게 적용함으로써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고 헌신된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서 곧 설교라고 하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중요한 것 한 가지 요소로 설교에는 반드시 청중을 고려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고민도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성경교육은 주해의 과정처럼 이론적인 제 과정들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론을 무시하면서까지 실제생활에서 적용 하도록 강요하지도 않는다. 결국 성경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제한되어 있는 일부 성경구절 즉 제시되어진 구절에 대해 핵심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파악된 의미를 현재의 삶의 정황에 적용하여 가르치며 결국에는 배운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한춘기, 2008).

다음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로 교육신학의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교육신학이라는 것은 교육학과 신학이 결합된 복합적 영역이다. 그래서 교육신학은 교육학 영역과 신학의 영역을 조금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영역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왜 가르쳐야 하는가? 그리고 가르친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즉 교육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신학적 작업의 영역이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즉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학의 영역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신학적 관점 즉 신학과 교육학의 영역에서 성경교육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마 28:19-20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위 구절은 제자를 삼는 세 가지 수단이 잘 나타나 있다. 첫째, 가는 것이고, 둘째, 세례를 베푸는 것이며 셋째, (지킬 것을)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본문에서는 (반드시) ‘지킬 것’인데, 이 지킬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 된다(정일웅, 2008). 분명한 사실 하나는,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 없이 전파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은 가르치고 그리고 배우는 것을 통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교육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복음이 유지, 전파, 계승되게 하는 것이며, 전파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 제자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성경교육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라고 했다. 위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온전한 사람의 최소한의 필요를 갖추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교육신학의 관점 즉 두 영역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신학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교육학의 영역이 된다. 따라서 성경교육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즉 신학과 교육의 영역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 곧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성경교육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바른 삶을 이해하고 살아가게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창 1:26)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인간으로서의 바른 삶이지만 한편으로 인간의 실제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대로 ‘다스리는 것’(히, hd:r;)도 바른 삶이 된다. 다스리는 것에는 ‘취하는 것’과 ‘지배하는 것’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취하는 것 곧 소유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한 소유 또한 문제가 된다. 이를 확대하면 욕심의 문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여태껏 서로 싸우며 질시하고 반목 가운데 있어 왔다. 하지만 이 싸움을 멎게 하는 것도 바로 성경교육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성경교육은 평화교육³⁾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한편 지배하는 것에는 생물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무생물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관련된 현재의 문제는 ‘개발’의 측면이다. 현대 사회가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개발’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 과정이다. 그런데 이 개발에 관해서 근래는 ‘환경문제’로 접근한다. 특별히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2011년 동(東)일본 지역의 지진과 이에 따른 쓰나미 피해로 말미암아 원전(原電)의 파괴는 인류에게 있어 큰 위협으로 다가 왔다. 그래서 원전포기 운동의 열기가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그렇다면 이의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 무엇일까? 결국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그 해결을 위한 노력과 실마리는 인간의 정치적인 노력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선하여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교육을 통해 그 분명한 해답을 주어야 한다.

3. 성경교육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교회가 주체가 되어 성경교육을 시행해 왔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성경교육은 그 자체가 신앙교육이었으며, 믿음의 초보자인 성도들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고 양육해야

3) 성경교육이 평화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코메니우스(1592-1670)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안영혁(2004). “개혁교회 영성신학으로서 코메니우스 영성 사상의 실천적 해석”.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하는 교회에 있어 최적의 교육적 도구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날의 교회가 성경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둔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성경교육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현재와 미래의 교회에 있어 바람직한 성경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교회에 의한 성경교육은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고, 자신들에게 당면한 온갖 신앙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믿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교육과 교육의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1) 유대인의 성경공부

쉐릴(L.J. Sherill, 1994)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유대인 공동체는 회당에서의 성경교육으로 인해 강화되었다. 무엇보다 회당은 흩어져 있던 자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있어 중요한 장소였으며, 한 마음으로 모인 자들에게 한 뜻을 가지도록 하는 성경교육은 시행 그 자체만으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었던 것이다. 회당에서의 예배는 기도, 성경읽기, 성경강해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장년과 청소년을 위한 성경공부반이 진행되었다. 성경공부 방법은 문답식과 대화식이었으며 랍비에 의한 일방적 강의가 아니라 때로는 학생이 질문하고 랍비는 대답하는 형식이었다. 뿐만 아니라 실생활 중심의 성경교육으로 율법 암송, 율법 통독, 율법 강해, 요절 암송, 율법 교독, 문답법, 의유법 등이 사용되었다. 한편, 회당은 예배와 교육하기에 알맞은 구조로 개조되었다는 점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경교육은 성경의 내용에 대한 지식을 더하는 교육이 아니라 바로 실생활 중심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초대 기독교의 성경공부

초대 기독교는 처음 유대교의 여러 분파(sects) 가운데 하나처럼 보였지만, 예수의 인격과 삶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 새롭고 싱싱한 신앙이 되었다고 라토렛은 평가한다(K.S. Latourette, 1978). 그런데 이러한 평가가 가능했던 이유를 들여다보면 기독교에는 성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 그리고 새로운 성경공부의 결과가 있었음을 의심의 여지없이 발견할 수 있다. 그 당시 모든 유대교는 유대 공동체의 전통에 따라 율법에 비롯한 성경공부에 익숙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율법대로의 삶에 익숙했다. 하지만 그들과 비교해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율법적 성경공부가 아니라, 유대교와 차별되는 성경공부를 통해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새롭고 싱싱한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초대 기독교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킨 것도 성경교육이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르쳤으며, 성경교육을 통해 견고해져 갔다. 심지어 디모데에게는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라”(딤후 4:2)고 했다. 바울자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히 4:12-13)고 고백했다. 초대교회 당시 성경교육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먼저 베드로, 바울 그리고 스테반의 설교에서 잘 나타내 보이고 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대변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경교육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서를 통한 그리스도의 재림, 고린도서를 통한 그리스

도인들의 윤리, 그리고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영적 규범, 갈라디아서를 통한 믿음과 성령의 권능에 의한 칭의 그리고 성화의 생활, 로마서를 통한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으며, 구원받은 자 만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에베소서를 통해 참된 교회의 성격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이상을 통해 우리는 성경교육의 주요내용 그리고 성경교육을 해야 하는 당위성과 성경교육에서의 신학적 전제를 발견할 수 있다.

(3) 속사도 시대와 교부 시대의 성경교육

콘스탄틴에 의한 기독교 공인(AD. 313) 이전까지 기독교는 계속되는 박해와 이단의 발생 그리고 분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기독교의 공인과 함께 대대적으로 전개된 교리 제정, 로마의 국교화, 그리고 유럽 대륙으로의 선교가 시작되었다. 이같이 기독교를 뺏어나가도록 한데에는 초신자 세례준비 학교(Catechumenal School)의 역할이 컸다. 수학기간은 2-3년이었지만 초급반인 청강반(Hearers), 중급반인 기도반(Kneelers), 그리고 고급반인 선별반(The Chosen)으로 구분하여 남녀노소, 유대인의 여부와 상관없이 감독, 사제, 집사, 교리문답 전문교사 등이 가르쳤다(C.B. Eavey, 1980). 초신자 세례준비 학교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 특히 175년부터 325년 사이의 교육 내용은 불행히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L.J. Sherill, 1994). 다만 4세기 이후의 문서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설교, 훈계, 신조, 그리고 주기도문의 전승, 성경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역사 등이다. 다음으로 초신자 세례준비 학교에서는 신앙생활의 훈련도 있었는데, 이는 이교도의 불결을 버리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써 책임을 완수하며,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입각한 성결생활을 강조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성경교육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교리의 내용 또한 성경교육의 연장선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경 그 자체의 역사라든가 또는 교회의 역사까지도 성경교육의 중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으며 마지막 이교도의 생활을 버리는 것, 곧 이단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까지도 성경교육에서 다루어야 함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이후 초신자 세례준비학교는 교리문답학교(Catechetical School)로 발전했다. 교리문답학교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를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성직자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감독학교(Episcopal School)과 성당학교(Cathedral School)의 전신이 되었다. 이후 대중 중심의 교리문답학교는 감독학교와 성당학교가 발전함에 따라 지성적 귀족계층으로 부터 잊혀져갔다. 이같은 영향은 성경교육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진리를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한 진리추구로 나아가게 되었다. 결국 이성중심의 헬라문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말시온(Marcion)은 구약성경을 배척하고, 성경에 대한 자의(字義)적 해석을 거부하고 대신 영해와 문자주의적 성경해석의 경향을 가져왔다(R.M. Grant, 1994). 결국 성경교육은 인간 이성중심의 헬라학문 유입으로 인해 성경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영적생활 역시 퇴보하게 되었다. 이처럼 성경교육의 중지는 교회로 하여금 교권주의와 형식주의로 대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성을 통한 진리추구의 문제는 현대 교회에서의 성경교육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것은 성경 엘리트교육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교육(universal education)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다수를 위한 지식중심의 교육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작금

의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즉 성경을 아는 자들만 성경을 알고,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된 시대라고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교육은 먼저 지식중심의 교육을 지양해야 하고 다음으로 그 교육의 대상에서도 있어 특정 그룹이 아닌 보편적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할 시대적 사명까지 동시에 안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과거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을 것이다.

(4) 중세 시대 성경교육

십자군 원정의 실패 이전까지 교회의 권위는 절정에 달했다. 교회의 권위적 목소리는 중세인들의 삶을 규정하는 윤리개념이었는데 교회에서 제시한 윤리적 삶의 모습은 주로 성직자들의 모습이였다. 한편 중세의 신비주의적이고 상징주의적인 교육내용 또한 중세인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그결과 현세에서 윤리적 생활을 강조하기 보다 현세를 버리고 참회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인들을 이끌었다.

성례를 통해 신비적으로 임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한 중세의 성경교육은 필연적으로 가정교육의 경시를 불러왔다. 이는 신학적으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은 교회의 성례를 통해서만 내려온다고 믿게 했다(C.B. Eavey, 1980). 결국 중세교회는 신비주의와 상징주의적 성경해석을 강조하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암송, 그리고 참회의 고백만을 성경교육의 주요내용으로 삼았으며, 반면 개인의 신앙과 성장, 그리고 윤리적 삶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은 시행은커녕 그 중요성조차도 인식하지 않았다.

한편, 중세의 교회가 신비주의와 상징주의로 흘러갔다면 소수의 집단에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의뢰하는 쪽을 택했다. 이 소수의 집단은 사도로부터 계승되는 복음에 따라 예배했으며, 그 자녀들은 복음을 암기하고, 복음적 정신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받았으며, 성경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충분한 지식을 갖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이들의 교육은 신비적이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성경에 대한 연구는 신비적 교제속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성취시키는 것으로 실시되었다. 이처럼 소수 집단이면서 종교적 생활과 교육에 있어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 집단으로 공동생활 형제단(the Bretheren of the Common Life), 왈도파(Waldenses), 후스파(the Hussites), 모라비안파(the Moravians) 등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성경에 조예가 깊었고, 인간의 전통보다 성경에 최고의 권위를 인정했으며 면죄부와 연옥과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반대하고, 부패한 성직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성례를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설교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최고의 주제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규칙적으로 개인이 성경을 읽었으며,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고, 성경 진리를 정기적으로 자녀들에게 교육했다.

중세 시대를 가리켜 흔히 암흑시대라고 일컫는다. 비록 대다수의 교회가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한 채 흑암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성경에 대해 바른 인식과 교육, 그리고 교육의 실천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수함은 물론 종교개혁에 있어서 이바지 할 수 있었다. 특별히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 것은 그 어떤 교육을 시행함에 앞서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5) 종교개혁 시대의 성경교육

종교개혁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십자군 운동의 실패로 인한 봉건제도와 장

원제도의 쇠퇴, 나침판의 발명에 힘입은 항해술의 발달, 그리고 신대륙의 발견, 지동설로 인한 세계관의 변화, 종이 및 인쇄술의 발명, 민족적 각성에 의한 반민족주의의 대두, 마지막으로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따른 시대의 필연적 행동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본질상 교회의 부흥운동, 기독교 재발견 운동, 그리고 새로운 신학 운동이다(배한국 편, 1993).

이 가운데 루터(M. Luther)는 성경교육을 통한 종교개혁 운동의 최초의 성공자로 이해된다(C.B. Eavey, 1980). 그는 1514년 로마서 1장을 명상과 함께 연구하던 중 복음을 발견하는 경험을 통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개인적 신앙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성경의 권위를 주장한 것이다. 또한 그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해석방법을 배척하고 문법적이며 역사적인 본문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했다. 성경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루터는 “만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취급하려면 우리의 전 노력을 확실한 어의를 찾는 일에 경주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기독교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해했다(배한국 편, 1993).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였으며, 장년을 위한 고리문답서와 어린이를 위한 문답서를 각각 출판하였다.

칼빈(J. Calvin)은 루터의 신앙교육의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강해, 신앙고백서, 그리고 요리문답서를 통한 성경교육과 종교개혁을 수행했다. 칼빈의 성경교육 방법은 넓은 의미의 인문주의자로서 성경을 문법적, 역사적으로 공부하는 하였지만 성령의 내적 조명을 의지했다(홍치모, 1981). 결국 성경은 인간의 의지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교육이어야 함을 잘 보여주었다.

(6) 근세 시대 경건주의자들의 성경교육

경건주의 운동은 스페너(P.J. Spener)와 프랑케(H. Francke)에 의해서 할레(Halle)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루터교회 내의 갱신운동이었다. 당시 루터교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 관계를 상실하고, 합리주의에 의해 정통주의화, 형식화, 고리화 되었는데, 스페너와 프랑케는 성경교육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갱신해 나갔다(P.J. Spener, 1988).

스페너는 자신의 집에서 ‘경건의 모임’을 조직하고, 이 모임을 통해 성도들간의 친교와 성경연구에 전념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성경과 신학적 지식의 전달, 기독교인의 실천적 생활을 강조했다. 특별히 교회를 갱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살아 움직이게 하자”는 제안의 구체적 실천방법으로 첫째,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것, 둘째, 교회에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어 나갈 것, 셋째, 경건의 모임을 가질 것(P.J. Spener, 1988)을 제안했다. 한편, 신학교육의 갱신 방안 중 대학교에서 경건의 모임을 가질 것을 제안하면서 성경의 한 본문을 택하여 읽고 연구하면서 각자가 느끼고 깨달은 바에 대해 나눌 것을 제안했다.

프랑케는 할레대학의 신학교 교육과정의 개혁을 단행했다. 신학교에서 성경의 언어들에 대한 인식론적이며 체계적인 학습과 연구, 설교 기법, 목회신학이 중심이 되었다. 신학생들은 성경을 원어로 읽도록 했으며 주석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신학과 관련 학문들간의 철저한 연구를 하게 하고, 귀납적 성격해석방법까지 배우게 했다. 프랑케에 의한 성경교육방법은 성경읽기, 암기, 진실, 순종, 기도 등 이었으며, 특별히 아동을 위한 최상의 교육방법으로 훈육을 제시했다(Brubaker ed, 1960).

(7) 현대 한국교회의 성경교육

한국 개신교 선교의 역사는 한국에 입국하여 실제 체재하면서 사역한 최초의 미국인 선교사 호레이스 알렌(H.N. Allen)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1884년 9월 22일 서울에 들어와서 영국, 미국, 그리고 각 서양 공관의 부속의사의 신분으로 짐을 풀었지만 자기가 선교사라는 직책과 사실을 당분간 외부에 밝히지 않았다(민경배, 1990).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H.G. Underwood)목사, 아펜젤러(H.G. Appenzeller) 부부 총 3명이 인천에 상륙했다. 동년 5월 3일에는 스크랜톤(Wm.M. Scranton)과 그의 어머니 스크랜톤(Mrs. M.F. Scranton)가 함께 입국했다. 특히 언더우드목사는 1885년 1월에 일본에 도착하여 2개월간 체재하는 동안 한국인 이수정(李樹廷)을 만나 한국어를 학습했으며,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이미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손에 넣고 있었다. 이는 한국인 스스로가 번역한 성경을 외국인 선교사가 손에 들고서 입국한 것이다(민경배, 1990). 알렌을 제외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선교활동 중 성경을 교육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었다. 1888년 한국 최초의 주일학교가 이화학당에서 12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경교육을 시행했다(김득룡, 1976). 이후 주일학교가 발전하면 분반공부 제도가 생기고, 분반공부가 확대됨에 따라 성경교육을 위한 교과책이 편찬되었다.

초기 한국의 개신교회는 주일학교와 사경회를 통해 성경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러한 교육은 교회의 지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양적인 성장까지 가져왔다. 그러나 1950년대를 기점으로 교회의 분열과 성경교육의 열정이 식어짐과 동시에 무질서한 부흥회가 난무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불건전한 신비주의 운동에 기반한 기복신앙, 감정적 체험 위주의 각종 부흥회가 성행하게 되었다(민경배, 1990).

1970년대 들어서 한국교회는 정통과 고전, 신앙과 경건으로의 복귀와 함께 성경에 대한 경건과 보수적 신앙으로의 성실을 다짐했다. 1980년대는 성경교육이 새롭게 강조되고 많은 교회들이 성경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성경교육 교재가 출판되어 교회에서 사용되었다. 이와 함께 선교단체 중심의 교재들 또한 많이 출판되었는데 대학생선교회(CCC), 네비게이트선교회,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UBF), 한국기독학생회(IVF)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CCC의 성경교재에 대해 은준관(1987)은 “성경지식의 증대, 성경이해의 능력을 배양함에 있어 효과적이지만 시간과 역사성의 결핍 그리고 교리와 신조를 위한 성경의 인위적 인용에 따른 단순함은 단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네비게이트의 경우 성경 암송에 중점을 두고 있고, UBF는 귀납적 성경공부와 본문 중심의 장별 성경공부를, 그리고 IVF는 문화번역과 그룹성경공부를 통한 대학생 선교와 귀납적 성경공부를 적용했다.

선교단체들에 의한 성경교육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집단강의, 주입식 등의 방법에 비해 그룹중심의 성경교육 방법들이 사용되었다. 기성 교회와는 차별화된 성경교육은 각 선교단체들의 부흥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한국교회 성장에 있어 원동력이 되었다고 한춘기(2011)는 평가한다. 하지만 선교단체들의 성경교육에 대한 비판도 있다. 그것은 먼저 건전한 교회론이 없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지식적 성경교육의 수료와 영성의 발달과 동일시 되었다는 것 그리고 획일화된 신앙인의 양성 등이 주요 비판의 내용이었다.

4. 성경교육의 방향

교회의 역사를 통해 살펴본 성경교육의 역사는 성경교육의 실제적인 시행여부를 떠나 그 결과가 성경교육 자체의 가치를 잘 보여준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한 마음으로 찾으

려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성경교육은 오랜 역사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드러나게 했으며, 교회를 존속시켜 왔고 기독교의 부흥을 가져왔다. 이에 반해 인간과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성경교육에 대한 열정은 사라졌으며 기독교의 순수성도 사라지고 급기야 하나님까지 잊혀져 갔다.

따라서 성경교육을 행하기에 앞서 교육을 위한 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 그것은 세상적 의미에서 행동의 변화를 꾀하는 소위 조작적 수준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교육이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교육은 그 자체로서 신학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

(1) 성경교육의 신학적 전제

성경교육은 교육을 위한 신학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 그 근거는 신학의 다양한 영역과 내용들 가운데 다음의 세 가지가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하나님의 계시이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교육에 있어 주체가 되어 궁극적으로 교육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교육은 인간에 의한 구체적 교육의 행위가 없어도 이해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먼저 교육의 내용이 되고 다음으로 교육의 방법이 되며 마지막으로 교육의 결과까지 확인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계시이다. 일반계시 차원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이용한 이해와 실천만이 가능하기에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과 믿음의 차원을 이해시킬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의 역사도 깨달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의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계시가 있어야 한다. 결국 성경교육에 있어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요소이다.

둘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다. 성경교육에서 다루는 주요 교육내용 그것은 분명 성경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이 가장 우선하여 요구된다. 먼저 성경에 대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기록된 것이라고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한다. 이러한 믿음은 성경에 대해 신적권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신적권위가 성경에 있다고 한다면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의한 교육이자 하나님을 교육하는 책이 된다.

셋째, 성경교육의 교사인 성령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그 영의 충만한 개입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이 성경에 대해 인간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적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인간들에게 전달하고 깨닫게 하는 교사였다⁴⁾.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교육의 주체가 된다.

(2) 성경교육 내용의 신학적 구조

4) 참고. 요 16: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경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은 분명한 신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신학적 구조는 신앙교리와 의 관계에서 조직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초대교회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온 신앙교리의 근본토대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의 영향력은 교회사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 이 근본토대는 개혁신학의 특징인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의 4단계 구조로 정리된다.

1단계 : 하나님의 창조와 언약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시작한다(창 1:1). 창조는 옛세 동안 이루어 졌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이성과 불멸의 영혼인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함이었으며, 땅에서 생육, 번성,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기 위함이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한편으로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사명과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교육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하며, 인간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 분명한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통해 존재의 의미까지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다.

2단계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구원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타락된 존재임을 증거 한다. 타락이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1)되었거나 또는 단절의 상태에서 인간 홀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로 타락하게 되었고, 이는 하나님을 향한 아담의 죄였다. 따라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한 것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아담의 죄는 아담 이후 출생하는 모든 인류에게 있어 출생에서부터 죄와 실수를 유전되게 했다. 결국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게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으며 인간 스스로 의와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무능력의 존재(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3)가 되었다. 그러므로 성경교육은 타락 즉 죄의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적극적인 불순종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라는 소극적 순종까지도 죄가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한편, 성경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종속하면 창조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증거 한다. 따라서 성경교육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한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구체적 표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실천적 삶으로까지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3단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예수님의 사역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는 것(막 1:15)이었으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의 선포(골 1:15; 벨후 3:13; 계 21:1-5)였다. 이 사역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있으며, 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적으로 도래할 것임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이제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름 받았기에 지상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이자 몸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7). 교회는 세례, 성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며 경험하는 장(場)이면서도 동시에 불러 모은 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여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교육의 장(場)이다. 결국 교회는 성령에 의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공동체이고, 공동체를 가르치고 양육하며 훈련시키는 교육공동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공동체인 교회는 무엇보다 성경교육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 차원의 나라임을 명확히 하고, 눈에 보이는 나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임도 이해시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는 일 즉 전도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단계: 역사의 종말과 완성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 날, 즉 역사의 종말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 분명히 증거한다. 그 구체적 사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러한 종말은 인간의 역사에 대한 종료를 의미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완성을 의미한다.

종말에 대한 교육은 어렵다. 그 이유가 현재를 떠나 미래의 사건과 일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말에 대한 교육은 무엇보다 믿음이 강조된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믿음은 아니다. 믿음은 확고한 삶의 태도를 보일 수 있어야 하고, 극단적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해 흔들림 없는 신뢰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이 믿음은 인간의 교육적 행위를 통해 강요하거나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가르쳐져야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성경교육에서의 성경해석

성경은 역사의 기록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이다. 계시의 기록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해를 위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사용되어 왔으며, 신학에서는 성경의 이해의 기술을 학문적으로 다룸에 있어서 특별히 '해석학'이라고 했다. 해석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언어를 사용하고, 사용

되어진 언어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 번역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또는 교육함에 있어 이해를 위한 모든 과정이 바로 해석이 된다.

성경을 인간으로 하여금 이해 가능하도록 해석해 주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다. 그런데 교회가 성경에 대해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심지어 이단시비, 사이비 종교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석의 방법에 있어 편향을 보인다면 성경 자체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해석은 신학적 작업이며, 신학 그 자체의 역사(윤화석, 2011)가 되어야 한다.

III. 결론 및 제언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삼중고(지도자 부재, 성도수 감수, 교회를 향한 비난)에 대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은 영성의 회복이며 이는 성경교육 그것도 제대로 된 성경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교회의 문제에 대해 과연 성경교육이 해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심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의 성경교육과 관련된 역사가들이 증명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자신 있게 그 증거들을 제시했다.

기독교 성경교육의 역사에 있어 교육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성경 자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이라는 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교육의 결과는 전적으로 성령에 의지했다. 이것이 성경교육의 시작이고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는 이전의 이 모든 전통들을 송두리째 무시했다. 이러한 행동이 지금의 위기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냉철한 자기반성과 함께 제대로 된 성경교육을 시행해야함이 시대적 과제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제대로 된 성경교육이란 먼저 신학적 진체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계시, 둘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셋째, 성경교육의 교사이신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이다. 다음으로 성경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그 교육내용에 대한 신학적 구조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한다. 그것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1단계 하나님의 창조와 언약, 2단계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구원, 3단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역사의 종말과 완성이 그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의 해석의 방법도 신학적 이어야 한다.

영성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은 과거를 비롯해서 현재까지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 왔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시도들에 대한 효과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 이유는 개발 시도의 시작에서부터 인간적인 의도, 인간적인 계획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는 제대로 된 성경교육의 방법과는 거리가 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론적인 토대만 신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에 있어서도 신학 즉 성령님의 능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모든 내용들이 진정한 21세기 성경교육의 방향인 것이다.

참고문헌

- 김득룡(1976). 『기독교교육학원론』.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 김창훈(2009). 『설교학 강의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의안.
- 민경배(1990).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 배한국 편(1993). 『루터와 종교개혁』. 서울: 컨콜디아사.
- 옥한흠(2005). 『다시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 정일웅(2008). 『교회교육학』. 서울: 범지출판사.
- 한춘기(2008). 『학습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교수 방법론』. 서울: 생명의 양식.
- 홍치모(1981). 『종교개혁사』. 서울: 성광문화사.
- Eavey, C. B.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김근수 신청기 역(1980). 『기독교교육사』.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 Grant, Robert M.. *A Short Histor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이상훈 역(1994). 『성서해석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Sherrill, L. J.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이숙중 역(1994). 『기독교 교육의 발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Spener, P.J.. *Pia Desideria*. 엄성옥 역(1988). 『경건한 소원』. 서울: 은성.
- 윤화석(2011). “21세기 기독교교육학의 방향성 - 성경교수학적 접근”. 『제6회 한국코메니우스학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3-28.
- 은준관(1987). “한국교회 성서교육의 현황과 문제 분석”. 『연세대학교 연신원 목회자 하기 신학 세미나 강의집』. Vol.=No. 7. 360-368.
- 임자현(2004). “구성주의적 성서학습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교육연구』. Vol. 16/17. 131-151.
- 조현주(2010). “Cover Story: 2010 한국, 누가 움직이는가”. 『시사저널』. 2010(1087). 14-49.
- 한춘기(2011). “한국교회의 성장방안 모색 - 교회교육의 관점에서”. 『기독교교육논총』. Vol. 26. 129-151.
- Cully, Kending Brubaker. (Ed.)(1960). *Basic Writings in Christian Education*. Philadelphia: Westminster.